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2023년 7월 23일)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 미칩니다”(루카 1,5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 미칩니다”(루카 1,50).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주제인 이 말씀은, 우리가 젊은 마리아와 나이 든 친척 엘리사벳 사이의 복된 만남(루카 1,39-56 참조)을 되새겨보게 해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이 천 년 뒤에도 우리가 날마다 바치는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이 말을 천주의 성모님께 드립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루카 1,42). 일찍이 마리아께 내려오신 성령께서 하느님의 자비는 대대로 미친다고 선포하는 마니피캇의 응답을 마리아에게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또한 같은 성령께서 서로 다른 세대 곧 조부모와 손주,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모든 풍성한 만남을 축복하고 그 만남에 동반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한 것처럼 젊은이들이 노인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노인들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시대에 불행하게도 너무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노인을 유기하거나 그들을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올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세계청년대회와 가까운 날에 거행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거행 모두 우리에게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을 위하여 길을 나선 ‘서두름’(루카 1,39 참조)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젊은이와 노인을 잇는 유대에 관하여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노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기억을 보존하도록 또 크나큰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확신하십니다. 젊은이에게 노인과의 우정은 삶을 현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또 모든 일이 자신의 역량에만 달려 있지 않음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노인에게 젊은이의 존재는 자기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꿈도 성취되리라는 희망을 열어 줍니다.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과 주님의 자비가 대대로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인식은, 우리가 혼자서는 자신을 구원하기는

커녕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하느님의 개입은 언제나 함께 있음에서, 백성의 역사 안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충실하시어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경이로움을 이루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한 마리아는 몸소 마니피캇을 통하여 이 사실을 노래하였습니다(루카 1,51-55 참조).

하느님의 활동 방식을 더욱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가장 위대한 희망과 꿈은 일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대화와 관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금이 자리, 돈과 재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을 보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모든 세대를 포용하며 연결시킵니다. 그 사랑의 계획은 우리 존재보다 더 크지만, 우리 각자를 포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매 순간 우리를 부릅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가상 현실이 우리를 가두어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이 빠르게 흘러가는 현재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신체적 활력 저하에 연연하지 않고 놓친 기회를 후회로 곱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앞을 바라봅시다! 타성과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를 세세대대로 벗어나게 해 주시는 하느님 은총으로 우리가 빛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젊은이와 노인의 만남을 통하여 당신께서 열어 주고 계시는 미래로 우리를 향하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방문과 엘리사벳의 인사는 구원의 새벽을 보도록 우리 눈을 열어 줍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그들의 포용을 통하여 넘치는 기쁨 안에 조용히 인간의 역사로 들어옵니다. 저는 모든 이에게 권고합니다. 그 만남에 관하여 묵상하고, 젊은 성모님과 나이 든 요한 세례자 성인의 어머니 사이의 그 포용을 스냅 사진에 담듯이 그려보고 빛나는 표상으로 정신과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다음으로 저는 조부모와 노인을 포용하는 구체적인 몸짓을 취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을 버려두지 맙시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조부모와 노인의 존재는 소중한입니다. 우리가 같은 유산을 공유하고 그 뿌리를 지키려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속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선물을 노인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노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과거를 현재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공경합시다. 노인

들과의 동반을 거부하지 말고 노인들에 대한 우리의 동반을 거부하지도 맙시다. 결코 노인들을 버려두지 맙시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그들에게도 또 온 교회에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표징입니다. 저는 이날을 경축하고 또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기쁘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로 삼도록 모든 이를, 교구와 본당, 단체와 공동체들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만남을 준비하거나 각자의 나라에서 그 여행을 준비하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부모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찾아뵙시오! 그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 줄 것이며 여러분은 그 만남의 축복을 마음속에 품고 갈 것입니다. 노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청년대회를 거행하려는 청년들을 동반하십시오. 그 젊은이들은 노인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느님 응답이고, 여러분이 뿌린 모든 씨앗의 열매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의 창조적인 힘으로 그 백성을 언제나 다시 젊게 해주신다는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포옹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우기를 빕니다. 큰 사랑을 담아 여러분께 저의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저를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3년 5월 3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프란치스코

※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https://cbck.or.kr/Notice/20230314>)